

3세트면 충분했다...목포대 배구 무실점 세트 우승

대학배구 결승서 구미대 3-0 완파
8강전부터 한 세트도 안 내줘

전남 육상 종별선수권대회 선전
진민섭·박서진·김민지 금 수확

목포대 배구팀이 2020 전국대학배구대회 대학부(2부리그)에서 우승했다. 목포대는 올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대학 배구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14일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목포대 배구팀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

린 이 대회에서 구미대를 세트스코어 3-0(25:13, 25:16, 25:18)으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목포대는 8강전부터 결승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패를 거머쥐었다. 8강전에서 호남대를 3-0, 결승전에서 구미대를 3-0으로 꺾어 우승했다. 목포대 이인환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우승을 일궈낸 목포대 선수들은 대회 개인상 5개 부분을 석권했다. 오준영(대회 MVP·2년), 김세훈(블로킹상·3년), 박권희(세터상·4년), 전우현(리베로상·3년)이 기쁨을 누렸다. 전호문 목포대 감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승이 더 보람있고 값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육상선수들은 최근 열린 제4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선전했다. 진민섭(여수시청)은 장대높이뛰기에서 5.60m를 넘어 금메달, 박서진(목포시청)은 해머던지기에서 59.10m로 금메달, 김민지(나주시청)는 경보(20KmW)에서 1시간39분45초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하늘(나주시청)은 남자일반부 1,500m 은메달, 김은정(여수시청)은 여자일반부 높이뛰기 은메달, 윤승찬(목포시청)은 남자일반부 해머던지기 동메달 수상자가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대 배구팀이 2020 전국대학배구대회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우즈가 돌아온다...PGA 최다승 83승 도전



타이거 우즈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16일 개막
임성재·김시우 출전...만형 최경주도

드디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 선다. 우즈는 오는 16~19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456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930만달러)에 출전한다. 우즈가 PGA 투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이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즌이 지난달 재개된 이후 5개 대회가 열렸지만, 우즈는 활동을 자제해 왔다.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우즈가 5번이나 정상에 오른 '뒤틀'이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연패를 달성했고 2009년과 2012년에도 우승했다. 우즈가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하면 PGA 투어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우즈는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개인 통산 82번째 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샘 스니드(미국·2002년 사망)가 1965년 작성한 PGA 투어 최다승과 타이 기록을 이뤘다. 최다승 신기록을 세우려면 경쟁자들을 넘어야 한다. 이번 대회에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온람(스페인), 저스틴 토머스(미국), 더스틴 존슨(미국), 웨브 심프슨(미국) 등 남자골프 세계랭킹 1~5위가 모두 출전한다.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톱5가 총출동한 적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톱5를 이뤘던 제이슨 데이(호주), 조던 스피스(미국), 매길로이, 버바 왓슨(미국), 리키 파울러(미국)도 이번 대회에 모두 출전한다. /연합뉴스



임성재

다펜딩 챔피언 패트리ック 캔들레이(미국)와 브룩스 켈카(미국), 브라이언 디쇼보(미국), 직전 대회인 워크데이 채리티 오픈에서 우승한 폴린 모리카와(미국)도 출사표를 냈다. 우즈는 매길로이, 켈카와 한 조로 편성됐다. 모리카와는 디쇼보, 캔들레이와 같은 조에서 경쟁하고, 토머스와 존슨은 잔디 쇼플러(미국)와 함께 샷 대결한다. 한국 선수 중에는 임성재, 김시우, 안병훈, 강성훈과 함께 만형 최경주도 출전한다. 최경주도 2007년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컵에 입을 맞춘 기억이 있다. /연합뉴스

'골든보이'의 추락

세계랭킹 1위까지 했던 스피스 성적 부진...60위 밖으로 밀려

한때 세계랭킹 1위를 껴차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황금세대'의 선두 주자였던 조던 스피스(미국)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 스피스는 14일 자 주간 세계랭킹에서 61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58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 세계랭킹 60위는 특급 대회 출전 자격 기준이 되는 등 상징성이 강하다. 60위 이내 선수라면 세계

정상급 선수로 통한다. 스피스가 세계랭킹 60위 밖으로 밀린 것은 루키 시즌이던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13년 존디어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거둬 120위에서 59위로 도약한 뒤 한 번도 60위 밖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2018년 5월까지 세계랭킹 1위를 비롯해 3위 이내에 늘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마스터스, US오픈, 디오픈 등 3개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통산 11승을 올린 스피스는 저스틴 토머스, 잔디 쇼플러, 대니얼 버거(이상 미국) 등 이른바 PGA 투어 '황금세대'의 간판 주자로 군림했다. '골든보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타이거 우즈(미국)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다. 그러나 스피스는 2017년 디오픈 우승 이후 더는 우승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대 이하 성적표를 거둬 적어내며 추락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재개된 PGA 투어 최근 3차례 대회에서 55위, 57위, 그리고 첫 탈락을 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최강 SK 꺾었다

강경민 맹활약 태백산기 첫승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올시즌 핸드볼코리아리그 우승팀 SK슈가글라이더즈를 따돌리고 첫승을 신고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14일 강원도 태백 세연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SK를 30-27로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SK는 지난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우승팀이다. 광주도시공사는 15-12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 하지만, 후반전 중반 22-22로 팽팽한 접전을 펼

쳤다. 승리의 여신은 강경민의 솜씨 미소 지었다. 강경민은 후반 17분 4초 최지혜의 어시스트를 받아 7m 골을 넣으며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세웠다. 강경민은 9점을 넣었고 최지혜·김지현(이상 5골), 한승미·서아루(이상 4점), 원선필(3점)이 고루 득점했다. 오세일 감독은 "재활 중인 송해림을 대신해 김지현이 뛰었는데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100% 본인의 역할을 해냈다"며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잘 뛰어서 승리 할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7일 대구시청, 19일 삼척시청과 경기를 앞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8세 김주형 이번엔 '최연소 2연승' 노린다

16~19일 KPGA 오픈 출전
첫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 타수 아닌 점수로 성적 가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시즌 초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2002년생 김주형(사진)이 이번엔 '최연소 2연승' 도전에 나선다. 김주형은 16~19일 충남 태안의 솔라고 컨트리클럽 라고 코스(파72·7263야드)에서 열리는 2020시즌 세 번째 대회이자 신설 대회인 KPGA 오픈에 출전한다. 앞선 두 대회에서 '김주형 돌풍'이 거세게 일었다. 김주형은 코리아 투어 데뷔전인 우승종합건설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최종 4라운드 마지막 18번 홀(파5) 극적인 이글을 잡아내 우승 경쟁을 연장전으로 끌고 간 뒤 준우승하며, 지난해 부산 CC 오픈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나이를 의심케 하는 침착하고 안정된 플레이 속에 코리아 투어 프로 신분 최연소 우승(18세 21일)과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3개월 17일) 신 기록을 세워 '차세대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코리아 투어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시즌 상금(1억5122만원)과 대상 포인트(1000점), 신인상 포인트(900점), 평균 타수(66.875타) 모두 선두로 나선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도 단연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힌다. 특히 이번 주에 그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코리아 투어 '역대 최연소 2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도 갈아치운다. 현재 기록은 2007년 4월 토마토저축은행오픈과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김경태(34)의 20세 8개월 3일이다. 김주형은 "아직 배울 점,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각오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코리아 투어 사상 최초로 타수가 아닌 점수로 성적을 가리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려 김주형이 색다른 형식의 대회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에서는 파는 0점, 버디 2점, 이글 5점, 앨버트로스는 8점으로 계산한다.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하는 -3점으로 매 홀 스코어를 이 점수로 환산,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선수가 우승한다. 김주형 외에 개막전 부산경남오픈 챔피언 이지훈(34)도 올해 두 번째 우승을 노리고,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을 받은 문경준(38), 상금왕 이수민(27), 올해 2개 대회에서 연이어 톱5에 이름을 올린 이상우(27) 등은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담위터
3관	원 데이, 담위터
4관	반도, 담위터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살아있다
7관 씨네커플	#살아있다, 그레텔과 헨젤 밤별: 세상을 바꾼 폭탄소년
8관 씨네커플	결백, 소리꾼, 위대한 소년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훈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월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FOCUS
동화음악회 - 책으로 꿈을 꾸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